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6 회차 , 구원, 1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6, 구원, 1부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음 두 세션과 다음 두 강의에서 구원이라는 성경적-신학적 신약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신 구속적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나 하나님의 구원, 구원이라는 주제라는 더 넓은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이미 다른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했던 특징들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부통령으로서 아담과 이브로 시작하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현존을 모든 창조물 전체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죄 때문에 그 일에 실패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인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의 백성과 창조물에 대한 의도를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그리고 그는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그는 어떻게 다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까요, 그들 가운데 살까요,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실까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통치를 중재하고 궁극적으로 온 지구에 그것을 퍼뜨려 아담과 이브가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물에 대한 원래의 의도를 성취하는 데 실패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담처럼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땅에서 쫓겨나고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의도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어야 했지만 실패했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전의 계획을 폐기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담이 일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시도해 봅시다.

C 계획을 시도해 봅시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취해야 하며, 하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을 통해 그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지구에 구원을 가져오시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의 의도를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도 구속하셔야 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구원이 땅 끝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구원이 아담과 이브를 통한 그의 약속과 의도와 그의 원래 창조를 통해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구속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 주고자 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구속하기 위해 오셔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구현하시고 그의 죽음을 마련하시고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을 마련하셔서 축복이 땅 끝까지 미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를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한 참된 백성으로 통합하십니다. 그는 이미 그 최종적인 절정, 그 최종적인 표현에 앞서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는 모든 인류와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방인을 포함하기 위해 가져오고자 하는 구원을 성취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된 땅에 거주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시는 새로운 창조 안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길고, 구속적이며, 구원적인 이야기로 끝나며, 그 절정과 정점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용어로 볼 수 있으며, 거의 포괄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의 곤경에서 구출하기 위해, 창세기 3장에서 소개된 죄의 곤경에서 구출하기 위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과 그의 창조물에 대한 그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기 위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져오시는 구원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의 곤경을 전제로 하고, 그들이 구출되거나 구원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주장의 일부는 1장과 3장에서 인간의 죄성의 곤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인간이 얼마나 죄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정죄하거나 정죄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이고, 하나님의 의의 선포가 3장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인간의 정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1장 18절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죄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정죄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2장과 3장에서 유대인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장의 마지막, 3장 중간까지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10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선언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잘 알려진 언급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로움에 의해서만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곤경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인간은 죄에 속박되어 있고 구출이나 구원이 필요하다는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합니다. 나중에 로마서 6장 15절부터 바울이 노예의 상황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우리가 한때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여 그 사악함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이전 상태였고,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노예가 되어 순종했습니다. 13절: 죄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도 불의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 죄가 더 이상 너희 주인이 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면 16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종들에게 너희 자신을 드릴 때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이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든, 의로움인 순종의 종이든 ,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도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과 그 이후의 구절들을 반영할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의 행실과 공중의 왕국의 통치자를 따랐을 때, 여러분이 살았던 범죄와 죄로 죽었습니다. 그 영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그들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육체의 생각과 욕망을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래 진노를 받을 만한 존재였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거둢거둢 인간의 곤경과 인간의 죄악의 상황을 전제로 하며, 우리는 그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것은 심판입니다. 그의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구원하시는 행위는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럼, 다음 몇 세션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구원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이미지, 실제로 구약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이미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도 있고, 그 중 많은 이미지가 바울과 신약 저자의 시대와 문화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구원의 현실을 언급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로 나온 이미지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구약과도 관련이 있는 이미지입니다. 또 다른 인식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이미지가 우리가 살펴본 다른 주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데 지치겠지만, 신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이미지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아닌 종말론의 긴장감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의 마지막 축복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구원의 축복의 최종적 현현에 앞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덕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주제, 즉 구원의 주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구출이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위험으로부터 구출이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신약은 그 용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그 죄로 인한 죄와 미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거나 구원하신 일의 관점에서 사용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복음서에서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참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한 마태복음 1장 21 절로, 요셉이 마리아가 곧 낳을 아기의 이름을 지을 것을 들은 부분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주로 유배를 하게 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약 저자 중 일부와 많은 유대인 저자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유배 중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의 오심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유배로 몰아넣은 그들의 죄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구출하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점에서 마태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모습인지 말해주지 않지만, 복음이 계속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백성, 특히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고 유배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단이 될 것입니다.

루가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흔한 명칭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특히 사회적 소외자와 죄인들의 구세주로 봅니다.

우리는 그가 세리들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사마리아인과 나병환자, 나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는 세상의 구세주로 묘사됩니다. 사실, 구원이나 구세주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거나 복음서의 다른 어느 곳보다 누가복음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구원의 복음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주된 방식인 듯합니다. 거듭거듭,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발전시킨 더

오래된 저서로는 I. Howard Marshall이 쓴 작은 책이 있는데, 그는 Luke를 역사가이자 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핵심 주제를 거듭거듭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구원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를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 이미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행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루가복음 1장에서 불러진 다양한 노래나 연설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 루가복음 1장 47절에서 마리아의 노래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응답입니다. 특히 그녀가 곧 낳을 아이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부르는 찬송가는 하나님 께서 지금 그의 백성을 위해 구원과 구속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계신다는 주요 주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1장 67-69절에 나오는 스가랴의 노래에서도 봅니다. 그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뿌를 일으키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의 탄생 맥락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 구원이 어떻게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좋은

소식이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는 메시아이시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 봉헌되실 때, 30절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그 아이를 봅니다. 시므온은 그 아이를 팔에 안고 말합니다. 주권자이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당신의 종을 평화롭게 놓아주실 수 있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1장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곧 지금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주실 축복의 관점에서의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현존하고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했듯이, 누가의 두 권짜리 작품의 두 번째 권인 사도행전은 구원 또는 구세주라는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구원이 하는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구원은 다른 이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절이 신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적어도 구원에 대한 가르침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 구절에서 우주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부활하셨고, 이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나는 12절을 읽고 뒤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너희는 이방인들의 목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롭게 행동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13장 3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이 너희에게 전파되었느니라. 그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니라. 이는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이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구속과 구원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옵니다. 구원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회개와 믿음의 응답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됩니다. 바울의 서신으로 넘어가면 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저는 구원을 포괄적인 용어로 취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별개의 주제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책의 맨 처음, 1장 10절에서 9절의 일부를 뒤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문장의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해 들은 것을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돌렸는지 말해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를 하늘로부터 기다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는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장 9절에서 비슷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하거나 건져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받을 만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비슷한 언어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저자는 실제로 복음에 대한 언급으로 책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바울이 처음 네 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의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얼마나 더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되었거든, 화해된 후에 그의 생명을 통하여 얼마나 더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 즉 그의 심판, 그에게 반역하는 자들, 죄 많은 자들에게 쏟아 부을 형벌에서 구출하거나 건져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구원은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에서 구출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아직 아닌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종말 심판에서 구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울의 서신에서 이미 존재하는 차원을 봅니다. 즉, 구원은 현재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는 구원을 현재적 현실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13, 이는 그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얻었느니라.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얻었고, 죄의 용서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구원은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 이 현 시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에서 건져내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로부터 건져내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이 현재적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그러나 그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상속자의 권세 아래 있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를 받을 만했지만, 그의 큰 사랑과 자비로 인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죽었을 때에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즉, 이 맥락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 이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는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앞서 읽은 본문인 디도서 3:5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로마서가 1장 16절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약속된 구원을 가져다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시 한번, 특히 바울의 글에서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주제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새 시대와 관련된 약속된 축복, 그리고 구약의 약속을 그의 백성에게 가져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하고, 죄에서, 사탄의 권세와 악의 권세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구출하여 용서와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왔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선택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고 선출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사이의 보다 체계적인 신학적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적 틀에서 선거를 더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적 틀에서 선거를 더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나 대신, 다시 한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바울의 서신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선택 또는 선거라는 언어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언어가 이제 신약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그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시고 성취하신 구원의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에베소서 4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하셔서 그의 눈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언어는, 제 생각에, 구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언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 택함의 언어는 그들이 신의 주도로 창조되고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택함의 언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고 백성을 택하심으로써 은혜로운 주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부터 사람들을 택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공식화하고 우리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예지 등과 관련하여 이해하는지에 대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 논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언어의 기능을 우리의 구원,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성취하신 구원과 관련하여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운 주도권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백성을 부르고, 백성을 존재하게 하십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특징은 선거 언어가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인에게만 적용되는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미지는 죄 사함의 언어입니다.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약속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죄 사함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겠습니다. 본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 때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음 34절의 끝으로 건너뛰어 내려가자. 내가 그들의 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죄의 용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유배하게 한 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을 통해 용서받을 것이다.

따라서 구약에서 새 언약의 약속 중 하나는 죄 사함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것, 구약의 희생 제도와 관련된 것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른 곳에서 약속된 이 새 언약이 마침내 시작된 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았고,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명백하게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을 길게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 사함은 구약의 희생 제도와 연관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죄를 다룰 수 없었던 구약의 희생 제도는 더 큰 것을 가리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람들의 죄를 다루고 새 언약 아래 약속된 죄 사함을 가져오는 궁극적인 희생, 즉 자신을 주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나머지 바울 문헌에서, 특히 죄 사함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때, 저는 저자가 예수의 죽음이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을 개시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다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새 언약 하에서 죄 사함을 성취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6절, 사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축복의 목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져오는 구원의 축복,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를 통한 구속,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이 이제 구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보는 구속,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즉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새 언약

구원의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구속과의 연관성을 주목하세요. 하지만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콜로새서에서도 궁극적으로 그 연관성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새 언약 구원의 축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콜로새서 2장 13절에서, 여러분이 죄와 육체의 할례받지 않은 상태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어떤 사람들이 종종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에서, 적어도 주제적으로는, 당신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좋은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보세요, 제가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피를 흘려 믿음으로 받는 속죄 제사로 드리셨느니라.

그는 자신의 관용 속에서 이전에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대한 명확한 언어는 거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중요성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혜로운 용서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가장 잘 포착한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 자신과 화해시키시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대신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약속한 새로운 언약의 성취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의 죄의 영향은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이기도 하므로, 죄의 용서와 새 언약의 성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그의 백성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주제는, 우리는 이미 이 주제와 관련된 죄의 용서를 보았고, 그것은 구속의 주제입니다.

구원은 구약성경 배경과 바울 시대의 그리스-로마 세계의 배경을 모두 가진 이미지 중 하나이며, 즉 시장에서 나옵니다. 구원은 대가를 치르고 얻는 자유를 뜻한다는 상업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후반부, 즉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신약성경에서 항상 존재하거나 심지어 주로 존재하듯이, 구원이라는 용어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이 그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지불된 대가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제가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에서 음행을 피하고, 성적 부도덕을 피하라는 그의 명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신 바 되었거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그 값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의 나머지 서신의 맥락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강조,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죽음의 맥락에서 구속의 연결성 안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가가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이며, 그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거나 자유롭게 하는 대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아마도 출발점은, 이것이 그의 이방인 독자, 바울의 이방인 독자의 귀에 울려 퍼졌을 텍스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로마 세계와 상업 및 시장 언어의 맥락에서, 이것의 가장 두드러진 배경은 아마도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기일 것입니다. 돌아가서 출애굽기 주제에 대한 우리의 이전 논의를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엑소더스는 종종 그들의 구원으로 불립니다. 출애굽기 15장과 11절은 이스라엘의 이집트로부터의 자유 또는 해방의 맥락에서 구원이라는 언어를 분명히 사용한 두 개의 구약성경 본문을 언급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의 노래에서 15장, 15장과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봅시다. 신들 중에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주님?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거룩함에 위엄이 있고, 영광에 두려우며, 능력을 행하십니까? 봅시다, 제가 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당신은 오른손을 뺏으시고 땅이 당신의 원수들을 삼키나이다. 당신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이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나이다.

12절은 내가 원했던 구절입니다. 특히 12절과 13절입니다. 당신은 오른손을 뺏으시고 땅이 당신의 원수들, 이집트 군대를 삼킵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은 당신이 구속한 사람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즉, 당신은 해방했습니다. 구속의 개념은 자유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함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우리는 또한 시편 77장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특히 시편에서, 그리고 구약의 다른 곳에서, 종종 하나님이나 저자들이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회상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집트인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출애굽을 회상합니다: 시편 77장 15절.

당신의 강력한 팔로 당신은 당신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약성서의 구원 언어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하시고, 속박에서 구출하시고, 지금은 그의 백성을 해방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들어 복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습니다. 사거나 되사는 언어.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구원의 언어를 활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사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3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지금 이 악한 세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생각은 구원, 구원, 구출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고, 해방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언어의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4장과 4장과 5장입니다. 하지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으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여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도록 하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을 속박에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속박에서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과 7절에서 다른 곳에서 구원의 언어를 발견합니다. 저는 그것을 읽을 시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과 14절, 두 구절 모두 구원의 언어는 죄의 용서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것과 관련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또한 아직 아닌 차원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닌 차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 13절에서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누가 보증금입니까? 성령은 보증금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자들의 구속까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 이 현 시대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해방은 아직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과 30절은 같은 책에 있습니다.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봉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다른 종말론적 참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과 23절도 거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과 33절의 맥락에서 보면, 창조물 자체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그뿐 아니라, 22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온 창조물이 지금까지도 출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도 아들로 입양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속으로 신음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아직 아님 또는 종말론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이 악한 시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거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불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에 실현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체적 몸을 포함하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보장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다음 주제, 즉 칭의 또는 의로움을 소개하겠습니다. 칭의의 언어, 특히 바울 서신에서, 그리고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바울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칭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바울 서신 밖에서는 칭의의 언어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 개념이 거기에 있을지라도요.

하지만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변호하는 것,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법률 용어 또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의 주요 발전은 바울의 문헌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칭의 또는 믿음에 의한 칭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 율법과 별도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가 알려졌습니다. 이 의는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언어는 아마도 다른 곳에서 같은 용어로 칭의를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종종 우리 영어 번역에서 정당화로 번역되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그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화됩니다. 나중에 로마서 3장 26절에서 그는 현재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여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당화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주장에서, 정당화 언어가 2장 16절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1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출생으로 유대인이자 이방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언어는, 다시 말해서, 제가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 법적 또는 법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언어입니다. 즉,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 무죄하거나 무죄하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이제, 오늘날 신약 신학에서 바울의 정당화 언어의 의미에 대한 매우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종종 이것을 바울에 대한 옛 관점과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의 대조라고 부릅니다. 바울에 대한 옛 관점은 기본적으로 정당화를 주로 법적인 용어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와 입장을 다루는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관점인 NT 라이트와 제임스 던은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 선언하는 측면에서 정당화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지 선언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NT 라이트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적이고, 무죄를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의롭다고 선언받고, 의롭다고 입증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참 백성의 일원으로 선언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 다음 강의에서 바울의 정당화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프레임워크 내에서 명확하게 들어맞고 이해되어야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데이브 매튜슨 박사와 그의 신약 신학 강의 시리즈입니다. 여기는 세션 26, 구원, 1부입니다.